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5호 【루게 제25939호】주제 107 (2018)년 3월 6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
들을 접견하시
였다.

문재인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
장, 천해성 통일
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
장, 윤건영 청와
대 국정상황실
실장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성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이 문재인대통령의 진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23차 겨울철올림
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과견하여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한피해를

나는 거례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
라고 하시면서 이번 겨울철올림픽경
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
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였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특사대표단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
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
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특사로부러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제인 대통령
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였
으며 만족한 합의
를 보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
께서는 해당 부문
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또한 조선반도
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
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

들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
대통령특사대표단사이의 담화는 풍포
에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
였다.

본사정치보도반

